



보도자료

2015년 9월 7일(월)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기반총괄과 장봉진 과장(☎2110-1260)
김우석 사무관(☎2110-1261)
방 송 통 신 심 의 위 원 회 방송심의기획팀 김형성 팀 장(☎3129-5210)

제공일: 2015. 9. 7.(월)

방통위 - 방심위,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제정

- 방송 제작현장에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 문화가 확산되어야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통한 방송문화 개선을 위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14.8.) 및 2015년 주요 업무계획('15.1.) 중 '방송언어 품격 제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 막말, 왜곡, 선정적·폭력적인 표현이 증가하여 시청자의 우려가 커지고 방송언어의 건전성을 회복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하여 지상파·종편 등 모든 방송 제작자들이 방송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게 되었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요약본>, <총론>, <장르별 세부 지침>으로 구성된다. △시사·보도, △대담·토론, △오락·예능, △드라마 등 10개 방송 프로그램 장르별 특성에 맞춘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 방송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국민의 언어생활 및 가치관 형성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며 “이번에 제정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이 방송 제작현장과 심의 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방송 품격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특히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주문하였다.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의 방송언어 사용지침은 규범적 측면에서의 발음이나 표현, 문법 등을 주로 다루어 실제 제작 현장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심의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송언어 심의기준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현실적합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 간담회 및 관계자 대상 방송언어 교육, 바른 언어 사용 캠페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함으로써 방송매체가 자정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붙임 : 1.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부
2. 방송언어 가이드라인 1부. 끝.